



FEMW 2005 포럼 참관기



KIPRIS사업팀
최 유 찬

FEMW는 Far East Meets West in Vienna의 약어로 아시아 특허정보, 현재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의 특허정보를 유럽내 특허전문가들에게 소개하여 아시아 특허정보의 활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EPO 비엔나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이다. 제1회 행사는 2002년에 JPINFO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특허정보에 한정된 형태였으나 2004년부터 한·중·일 3개국 특허정보에 대한 행사로 확대·개편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2003년에 최초로 FEMW(당시 JPINFO)에 참석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워크샵 발표자로서 초청되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금년 FEMW 행사는 11월 24일부터 25일 까지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11월 22일 오후 1시 35분 FEMW 2005 포럼 참가를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향해 인천공항을 떠났다. 비엔나행 직항노선이 없는 관계로 유럽 대륙의 허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한국시간 23일 새벽 5시, 현지시간 저녁 9시경 약 16시간의 긴 여행 끝에 비엔나 공항에 도착했다. 마침 올해의 첫눈이 내렸고, 눈으로 장식된 도시가 멀리 동양의 끝에서 날아온 우리를 반겨 주는 듯 했다. 한국은 다음 날 새벽녘이니 비행기를 타고 과거로 날아 온 셈이었다.

동유럽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제법 쌀쌀한 날씨가 코끝을 찡하게 하였고, 겨울 코트를 가져오라던 EPO 관계자들의 충고도 허언(虛言)은 아니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비엔나의 차가운 바람이 오랜 비행으로 지친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 했고,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게 하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3일간의 출장일정이 순조롭게 끝나길 그리고 준비한 워크샵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호텔로 향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로 잘 알려져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유

럽의 고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 북쪽은 체코, 동쪽은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은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 서쪽은 스위스와 독일에 접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동유럽의 관문으로 통했다.

비엔나 시내는 마로니에 나무가 도시를 단아하게 감싸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많은 카페가 있어 유명한 비엔나의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오랜 세월 오스트리아를 지배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원으로 유럽의 많은 음악가들이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였으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차르트, 베토벤, 요한 슈트라우스, 슈베르트 등도 비엔나에서 활동한 음악가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음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요즘에도 거의 매일 저녁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공연이 열리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비엔나에서 시민들이 제일 먼저 복원하기로 결정한 건축물이 오페라 하우스였다니 비엔나 시민들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PO 비엔나 사무소 방문 및 저녁식사

공식행사는 24일부터 시작이지만 오전 중에 EPO 비엔나 사무소 방문과 저녁에는 EPO에서 마련한 한·중·일 관계자와 발표자들을 위한 저녁식사가 예정되

어 있었다.

비엔나 사무소는 우리가 머물던 호텔에서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쉽게 찾아 갈 수 있었다. 공항에서 우리를 픽업해준 아시아 특허정보 담당자 Irene Schellner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먼저 비엔나 사무소의 Director인 Gunther Vacek과 인사를 나누고 후 Irene과 몇몇 EPO 직원들과 meeting을 가졌다.

아시아 특허정보 책임자이면서 FEMW 행사의 실무 책임자인 Irene은 워크샵 운영을 통한 정보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향후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특히 2006년에는 KIPRIS 워크샵뿐만 아니라 비엔나 사무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다양한 방식의 양기

관간 업무협력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Irene은 유럽 특허정보 이용자들의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많은 EPO 고객들이 KIPRIS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Irene과의 meeting을 마치며 2006년 FEMW에서의 워크샵 추진을 위한 검토와 유럽내 KIPRIS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한국특허정보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유럽에 소개하는 기회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쌓아온 EPO 비엔나 사무소와의 신뢰는 이를 위한 긍정적인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표1. FEMW 2005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11. 24 (목)	09:00~11:30	스페셜 세미나	1. PATOLIS-e를 이용한 영문 초록 및 Fulltext 검색	
			2. 한·중·일 특허법 기초	
			3. 한·중·일 무료 특허정보 DB 소개	
			4. PATOLIS-e를 통한 Legal Status 정보 활용	
			5. 한·중·일 특허공보의 종류 및 번호체계 소개	
			6. FI 및 F-Term 소개	
	14:00~16:00	주제 발표회	• 개회사	EPO
			• 아시아 특허정보 Helpdesk로서의 EPO 역할 확대	EPO
			• 일본실용신안법 개정 등 주요 정책 동향	JPO
			• SIPO의 정보서비스 발전 현황	SIPO
16:00~16:30	휴식	• Coffee Break	KIPO	
16:30~18:00	주제 발표회	• PATOLIS 기능 개선 현황 및 활용방법	PATOLIS	
		• EC·ASEAN 지재권 협력 프로그램(ECAPII) 추진현황	EPO	
19:00~22:00	이벤트	•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재권 집행 전략	한켈맨 박사(유럽변리사)	
		• 이브닝 이벤트		
11. 25 (금)	09:00~10:00	토론회	• 한·중·일 전문가와 모닝커피	
			• IPC 제8판의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패널 : 삼국특허청 및 유럽특허청 관계자)	
	10:00~11:30	워크샵	1. INPADOC 및 esp@cenet을 이용한 아시아 특허 검색	EPO
			2. 일본 IPDL 검색방법	JPO, Japio
			3. KIPRIS 검색방법	KIPI
			4. 중국특허 검색방법	SIPO
	12:00~13:30	중식	-	
	13:30~15:00	워크샵	5. PATOLIS-e 검색방법	PATOLIS
6. FI, F-term을 활용한 일본특허검색의 장점			EPO, JPO, Japio	
7. 중국특허의 Deep Indexing			SIPO	
8.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기업 동향 전망			KIPI	
15:00~15:30	휴식	• Coffee Break		
15:30~16:45	결과토론/ 폐회식	• 워크샵 결과 토론 총평		
		• 참가자 대표의 FEMW 총평		
		• 폐회식		



저녁이 되어 EPO에서 마련한 한·중·일 관계자를 위한 저녁식사에 참석하였다. 비엔나 전통음식과 포도주를 맛보며 동양에서 날아온 우리들에 대한 환대 속에서 그들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중국 및 일본 측 참가자들과 만나 즐거운 대화와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FEMW 2005 개최

FEMW 2005는 스페셜 세미나, 주제발표, 워크샵, 결과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스페셜 세미나와 주제발표는 24일 워크샵과 결과토론은 25일에 진행되었다. EPO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행사에는 22개국, 70개 기관(기업)에서 12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었다.

〈그림 1〉 개최식



스페셜 세미나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석하는 것이며, 공식 행사 전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시아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EPO 비엔나 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의 경우 서비스 업체나 각국 특허청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거나 FEMW는 워크샵 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참가자들과 아시아 대표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실질적인 사안을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 2시가 되자 메인 컨퍼런스 장은 참가자들로 가득 찼고 사회자의 간단한 환영 인사와 함께 EPO 부청장 Curt Edfjall의 개회사가 시작되었다.

EPO 부청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아시아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EMW 포럼이 전 세계 특허정보 이용자에게 아시아 특허정보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ASEAN 특허정보 CD-ROM 발행 등 동아시아 각국의 특허정보를 유럽에 제공하기 위한 EPO의 다양한 활동과 지난 20년간 일본특허정보 Helpdesk를 비엔나 사무소에 설치하여 유럽내 일본특허정보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특허청(SIPO)의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 Helpdesk를 설치하여 유럽이용자들에게 중국 특허정보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였으며, 지난달에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특허정보 컨퍼런스(PATINEX)를 언급하며 한국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확산을 위한 활동을 높게 평가하였다.

EPO 부청장은 전 세계가 아시아 특허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영문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어 언어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개회사를 마무리 했다.

특별히 금년 행사에는 EPO 부청장이 참석하여 EPO 내에서 FEMW 포럼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주어 아시아 특허정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러한 변

〈그림 2〉 메인 컨퍼런스룸



화가 FEMW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PO 부청장의 개회사가 이후 한·중·일 특허청 대표 및 EPO 관계자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국과 중국특허청 대표는 각국 특허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번역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특허청의 박용우 사무관의 번역시스템(K-PION) 시연은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특허청 대표는 2005년 개정된 실용신안법과 지난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출원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EPO 동아시아 담당자는 ASEAN 국가의 지적재산권 인프라 구축을 위한 EPO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유럽변리사의 아시아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업무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는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유럽 특허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한국특허청의 번역시스템은 한국특허정보의 접근성을 월등히 향상시킨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Evening Event

저녁 6시경 주제발표 세션이 모두 끝나고 MAK (Museum of Applied Arts/Contemporary Art) 박물관에서 Evening Event가 있었다.

Evening Event는 비엔나 사무소 직원들이 준비한 클래식 연주에 시작되었으며, 음악의 도시 비엔나답게 프

로 수준의 연주를 보여준 그들에게 참가자 모두는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박물관 투어에서는 큐레이터의 안내로 MAK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였으며, The Kiss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 Gustav Klimt의 몇몇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Evening Event 동안 있는 비엔나 사무소 직원들의 멋진 연주와 박물관 투어는 예술의 도시 비엔나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KIPRIS 워크샵

25일은 오전9시부터 공식 일정이 있고 10시부터는 워크샵을 진행해야 하는 터라 아침 일찍 행사장으로 향했다.

워크샵 세션은 참가자들과 대면하여 진행해야 하는 관계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했기에 EPO측에서 세팅해 놓은 노트북을 확인하고 인터넷 연결 상태 등 IT 환경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을 체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KIPRIS 워크샵이 있을 회의 룸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KIPRIS 워크샵의 Chair를 맡아준 voestalpine사의 지재권 관리부서 책임자인 Gerald Landl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 역시 워크샵 Chair로서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도착하였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후 워크샵 Chair를 맡아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성공적인 워크샵 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EPO측에서 준비한 노트북의 환경과 인터넷이 모두

〈그림 3〉 Evening Event 연주회



〈그림 4〉 Evening Event 참가자와 함께



안정적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우리 시스템 역시 완벽함을 점검한 뒤 오늘의 공식일정을 위해 메인홀로 나섰다.

EPO에서는 참가자들과 아시아 대표들과의 열린 의견 교환을 위하여 “Morning coffee with the experts”라는 제목으로 워크샵전 공식일정을 준비하였다.

이 시간동안 참가자들은 각국 특허청 또는 기관별 대표들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또는 업무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동서양의 문화차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이러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EPO의 배려가 눈에 띄었다.

KIPRIS 관련 문의를 하는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을 만큼 답변에 열중하다 Irene의 부름에 급히 워크샵 룸으로 향했다. 드디어 “Searching Korean patent information on KIPRIS”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운영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 KIPRIS 워크샵



작년에는 처음이라 긴장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올해는 두 번째라 그런지 조금은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워크샵을 진행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물론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만 몇 해 전 대학원 특별강연회에서 초청했던 제프리 존스 前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의 ‘프리젠티는 Sorry라는 말을 해서 안되며, Joke를 준비하는 것을 잊어서 안된

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워크샵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째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 둘째는 청중을 지루하게 해서 안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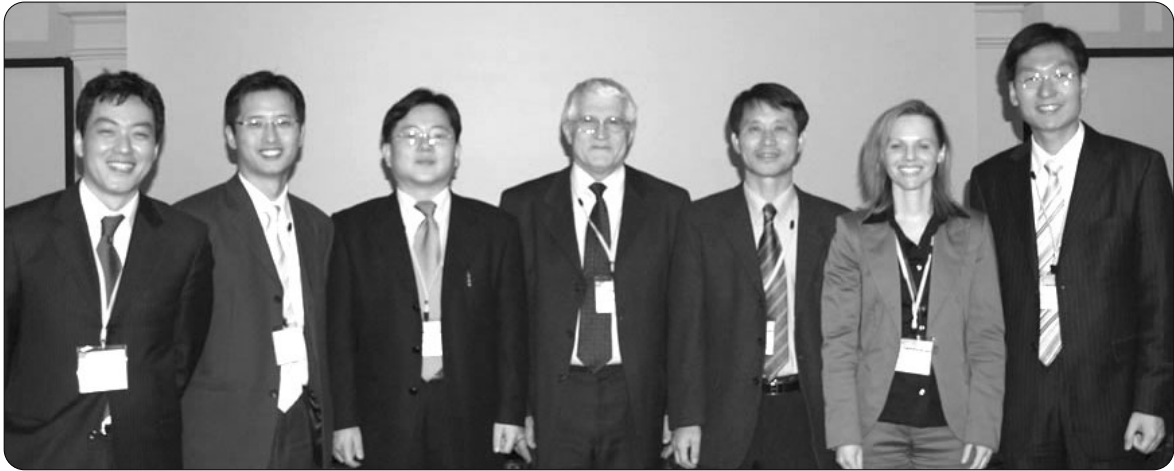
작년에 한번 해보았던 경험 덕분에 나름의 자신감으로 준비해온 내용이 최대한 잘 전달되도록 하였고, 프레젠테이션과 discussion 중에는 적절한 농담을 섞어 참석자들이 워크샵이 끝나는 순간까지 KIPRIS 워크샵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었다.

올해 워크샵에도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KIPRIS 워크샵에 참석하여 회의 룸을 가득 채웠으며, 참석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한국특허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discussion으로 인하여 다음 일정이 점심식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한 시간 삼십분을 15분 가량 지나쳐서야 워크샵을 마칠 수 있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유럽기업체의 지재권 책임자이거나, 특허청 심사관, 특허정보서비스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참석자들은 KIPRIS 데이터 및 검색기능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검색방법 안내를 위한 영문 도움말 정보, 데이터 커버리지에 대한 상세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KIPRIS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으며, KIPRIS 시스템 운영·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참석자들의 인사를 받아 KIPRIS 사업팀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워크샵 시간 내내 한국에서 열심히 시스템 모니터링 중이었던 KIPRIS 사업팀원들 덕분에 아무런 문제없이 시연을 진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워크샵을 끝낼 수 있었다.

오후에는 “특허분석을 통한 한국기업 동향 전망”을 주제로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한 두 번째 워크샵을 특허정보전략팀의 류장환 대리가 진행하였다. 한국에서의 특허정보 분석방법 및 활용사례에 대한 소개를 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 6〉 EPO 비엔나 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FEMW 2005 평가

계획된 모든 워크샵이 끝나고 행사의 마지막 일정한 결과토론이 진행되었다. 결과토론은 각 워크샵 Chair들이 워크샵 평가와 논의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참가자 전체와 공유하고 FEMW 2005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시간이었다.

모든 워크샵 Chair들은 아시아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워크샵은 그들이 관심 있는 국가의 관심 있는 정보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올해 FEMW 2005의 총평 발표를 맡은 Magister Ltd.의 Adams Stephen은 올해 4회째 개최된 FEMW가 아시아 특허정보에 특화된 국제 컨퍼런스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 지고 있음을 느낀다는 소감과 주제발표 및 워크샵은 유럽 특허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Adams Stephen의 총평을 끝으로 언제나 그렇듯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되었다. EPO 비엔나 사무소장은 아시아 대표들과 워크샵 Chair 한명 한명에게 선물과 감사장을 전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행사 참가라 EPO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참가자들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참가자들과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워크샵에 대한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FEMW 행사장을 떠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으며, 한국특허정보에 대한 해외 특허업계 높은 요구와 한국특허정보원의 한국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Gateway로서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평가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세계 특허시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번 출장을 통하여 여러 해외기관의 업무 파트너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어으로써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